

## 제자훈련 사역에서 성경적 상담의 활용: 질적 사례연구

강명옥\*

### 국문초록

이 논문은 한국 교회의 제자훈련사역에 성경적 상담이 적용될 때 제자훈련 참여자들에게 어떤 긍정적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연구는 “제자훈련 참가자들이 성경적 상담을 받은 후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가?”라는 연구 질문을 통해 한 지역교회의 제자훈련사역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성경적 상담을 받는 경우 어떤 성장과 변화를 체험하는지를 질적 사례연구 방법으로 고찰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 논문은 제자도, 제자훈련 그리고 성경적 상담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한 후 성경적 상담을 접목한 한 지역교회의 제자훈련 사역의 사례를 연구한다. 선행연구들은 제자훈련과 성경적 상담이 그 목적과 접근방법의 측면에서 유사함을 지적한다. 상담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제자훈련에 성경적 상담이 접목되었을 때 피상담자들은 문제의 심각성 인식, 신앙과 인터넷 문제의 연관, 그리고 교회의 중요성을 통해 도움을 받아 삶이 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례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자훈련에의 성경적 상담의 적용을 위하여 ‘실제화, 자료화, 훈련, 활용, 모집, 확장’의 6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한다.

**중심단어** : 제자도, 제자훈련, 성경적 상담, 교회 돌봄, 인터넷 중독

• 논문 투고일: 2014년 4월 20일

• 논문 수정일: 2014년 5월 5일

• 게재 확정일: 2014년 5월 9일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 I. 여는 글

이 연구는 한국 교회의 제자훈련 사역에서 성경적 상담이 제자훈련 참여자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고찰을 목표로 한다. 더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한 지역교회의 제자훈련사역에 성경적 상담을 적용함으로써, 참여하는 구성원이 어떠한 성장과 변화를 체험하는지를 질적 사례 연구 방법을 통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현대 기독교사에서 보기 드문 성장을 이루었다. 이러한 한국 교회의 양적 성장에 기여한 여러 요소들 중,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자훈련 사역(discipleship training)을 간과할 수 없다. 많은 지역교회에서 제자훈련 사역은 교회사역의 최일선에 있는 전도와 훈련 영역을 감당하며 한국 교회의 성장에 기여하였다.

제자훈련 참가자들의 대부분이 훈련에 진지하게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신앙의 성숙과 삶의 변화를 체험한다. 그러나 교회에서 성경적인 제자도(discipleship)가 강조되기보다는 그것이 제자훈련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외형적 헌신과 성장에 치중하게 되고, 개인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를 적잖이 보게 된다. 제자훈련이 지니는 이러한 개인의 성장과 내면적인 문제해결의 관점에서 발견될 수 있는 약점은 상담적 개입이 조화롭게 결합됨으로써 보완,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적 상담은 기독교적인 상담과정에서 특히 제자됨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제자훈련 사역과 적절히 결합될 수 있다.

이 논문은 “제자훈련 참가자들이 성경적 상담을 받은 후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가?”라는 연구 질문에 대하여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제자도, 제자훈련 그리고 성경적 상담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한 후, 성경적 상담을 접목한 어느 지역교회의 제자훈련 사역의 사례를 고찰한다. 이어 이 사례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자훈련에 있어 성경적 상담의 적용을 위한 6가지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한다.

## II. 펴는 글

### 1. 이론적 배경

#### 1) 제자도와 제자훈련

제자훈련은 제자도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한다. 제자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는 것이며, 제자훈련은 주로 교회나 기관 또는 모임에 의해서 진행되는 어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말한다. 예를 들어, David Watson의 책 『제자도』에서는 제자도의 의미와 성경적인 기원, 제자의 의미 등을 다룸으로, 개인적인 신앙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를 주로 다룬다.<sup>1)</sup> 한편 제자훈련에 관한 다양한 교재들은 어떻게 평신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훈련하여 평신도 지도자로서 교회를 섬기게 되는가를 다루고 있다. 즉 제자도는 주로 신학적·이론적인 관점을, 제자훈련은 구체적인 삶에서의 실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자도가 제자훈련의 정신과 방향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제자도의 가장 잘 알려진 개념으로는 아마도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으로서의 제자도일 것이다. 실제로 이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관계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었다. 즉,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는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중심에 있으며, 그분을 따르는 자세와 목적으로서의 제자도를 보여준다.

#### 2) 제자훈련과 성경적 상담

제자훈련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변화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제자훈련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

1) David Watson, *Discipleship*, 문동학 역, 『제자도』 (서울: 두란노, 1996).

며, 성령의 인도함으로 바른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의 제자훈련은 주로 지역교회 안에서 조직화된 프로그램으로서 주로 소그룹의 형태로 진행되는 사역을 말한다. 이와 같은 제자훈련 사역은 훈련된 소그룹리더와 구성원들이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성경에 관한 지식, 성경적 지식의 적용 그리고 교회생활 등을 배우고 훈련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사랑의 교회의 제자훈련 사역을 들 수 있다. 상담은 구체적인 문제들 가운데서의 변화를 다루는 것은 물론,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제자훈련과 비슷한 목표를 공유한다. 그런 의미에서 Neil Anderson은 ‘제자도 상담(Discipleship Counsel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는 곧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나, 그들 자신의 개인적이고 영적인 갈등들을 해결하도록 도움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활기와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sup>2)</sup>

Carey Hardy는 “상담이 왜 필요한가? 그냥 제자도(훈련)면 충분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답하면서 제자도와 상담의 관계를 명쾌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는 상담을 제자도의 일부로 보고, 성경적 진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으로서 구체적인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고 밝힌다. 이어 그는 상담영역에는 일반적인 제자훈련에 비해 좀 더 구조화된 환경과 보고책임이 뒤따르며 이는 크리스찬(훈련생/피상담자)의 삶에서 고치기 어려운 악습이나 구태를 놓고 상담하는 경우에 더욱 그렇다고 주장한다. “때로는 상담이 제자훈련에 있어 필수적으로 요청되거나 집중화된 제자훈련의 한 형태로서 기능하는 경우도 있다.”<sup>3)</sup> 다시 말해, 상담은 제자훈련의 중요한 구성요소이자 실제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2) Neil Anderson, *Discipleship Counseling: The Complete Guide to Helping Others Walk in Freedom and Grow in Christ*(Ventura, CA.: Regal, 2003), 14.

3) Carey Hardy, “Is Biblical Counseling Really Necessary? Isn’t Discipleship Sufficient?” in *Introduction to Biblical Counseling: A Basic Guide to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Counseling*, eds. John MacArthur, Jr. & Wayne A. Mack (Dallas, TX.: Word, 1994), 369.

그런가 하면 Anderson은 아예 상담과 제자훈련 사역을 원리 면에서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그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이것들[상담과 제자훈련 사역]이 기독교 공동체에서 너무나 자주 분리되고 있고, 연관이 없는 분야로 다뤄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제자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세우는 과정이다. 제자도적 상담(Discipleship Counseling)은 하나님과의 마주침이다. 성경적으로 말해서, 당신이 좋은 제자훈련 사역자라면, 좋은 상담자일 것이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sup>4)</sup>

다양한 기독교 상담의 접근방법들 중, 교회 안의 제자훈련 사역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은 성경적 상담(Biblical Counseling)이라고 할 수 있다. 성경적 상담은 그 이름이 의미하듯이 성경중심의 기독교 상담을 의미한다. 성경적 상담은 Jay Adams의 권면적 상담에서 출발하였지만 CCEF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현대의 성경적 상담은 Adams의 죄의 강조와 반심리학적 자세와는 달리 전문상담 영역의 상담적 관계(Counseling Relationship)와 복음 중심의 상담을 강조한다. 특별히 성경적 상담은 상담의 목표로서 피상담자의 상담적 이슈의 해결과 함께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통한 점진적 성화를 포함한다. 이러한 성경적 상담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제자도의 방향과 맥을 같이 한다. 예를 들면, Edward Welch는 성경적 상담을 ‘제자도와 성경적 친구관계의 혼합(a hybrid of discipleship and biblical friendship)’이라고 정의하며 제자훈련과 성경적 상담의 연관성을 강조한다.<sup>5)</sup>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예로 Robert Kellemen은, ‘성경적 상담은 1:1 제자 사역이므로 교회에서 성경적 상담을 하고 싶다면 성경적 제자훈련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주

4) Anderson, *Discipleship Counseling*, 13-14.

5) Edward Welch, “What Is Biblical Counseling, Anyway?” *The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16, no.1(1997).

장한다.<sup>6)</sup> 그는 성경적 상담을 일종의 제자로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삶의 여정(제자도의 여정) 가운데 여러 문제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크리스찬들을 돕는 사역, 나아가 상담의 도움을 받은 이들로 하여금 삶의 현장에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사역이라고 설명한다.

신현광은 성경적 상담의 기초를 제공한 권면적 상담과의 관계를 고찰하며 제자훈련과 성경적 상담의 관계를 정리한다. 그는 ‘상담적 목표’와 ‘상담의 방법’의 측면에서, Adams의 권면적 상담이 제자훈련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분석하였다. 자세히 말해서, Adams가 상담의 목표로 설정한 ‘영혼의 구원과 문제 해결을 통한 인격의 변화’는 제자훈련에서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으로까지 닮아가도록 하는’ 목표와 일치한다고 보고<sup>7)</sup> 그가 주장하는 상담 방법으로서의 ‘함께 하는 원리’는 제자훈련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평가한다. 신현광은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성경적 상담은 단순히 환경에 영향을 받거나 심리적 자극에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일시적이며 조건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항구적이며 지속적인 진정한 의미의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데, 이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요 성숙’이라는 제자훈련의 목표와 일치한다.<sup>8)</sup>

그러므로 제자도 또는 제자훈련이 크리스찬이 추구해 나아가야 할 삶의 전체적인 방향이라면, 성경적 상담은 이 방향성 위에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감독 가능한 변화와 변혁이 일어나도록 돕는 적절하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제자도는 표면적이고 포괄적인 목표

6) Robert Kellemen, *Equipping Counselors for Your Church* (Phillipsburg, NJ.: P&R, 2011), 34.

7) 신현광, “A Study on Correlation between Counseling and Disciple Making Training,” *대신대학교*, 「대신대학 논문집」 제12권(1992): 430.

8) 신현광, “A Study on Correlation between Counseling and Disciple Making Training,” 431.

로, 그리고 성경적 상담은 내용적이고 과정적인 실제화(realization)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성경적 상담은 개인의 감정이나 관계적인 측면에서 크리스찬들의 삶의 성숙과 온전함을 위해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3) 예수님의 제자사역과 치유사역

예수님의 공생애는 제자들을 부르고 훈련하는 제자사역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육체를 치유하는 사역으로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이러한 예수님의 치유사역은 육체적인 치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를 포함한 전인적인 회복,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포함하고 있다.

예수님은 모든 치유의 현장에서 대화를 통해 관계를 맺으시고 문제를 노출하셨다. 치유 그 자체 역시 말씀을 통해 이끌어내셨다는 점은 예수님의 치유사역이 말씀을 통한 마음의 변화를 추구하는 성경적 상담의 모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Kevin D. Huggins의 용어에 따르면,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치유를 위해 주술적이거나 미신적인 행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사용하셨다.<sup>9)</sup>

Kamila Blessing은 다음과 같이 치유의 신학적인 의미를 정리한다.

치유는 이 땅의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해 이루어진다. 치유는 전인격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데 의도를 둔다. 예수의 인격적인 임재는 물론 치유 행위와 구원의 중심이다. 최종적으로 이 치유자와 맺는 인격적인 관계는 사람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제 공된다.<sup>10)</sup>

9) Kevin D. Huggins, *Friendship Counseling: Jesus' Model for Speaking Life—Words to Hurting People* (Colorado Springs, CO.: NavPress, 2003), 13.

10) Kamila Blessing & Walter W. Wessel, *Mark EBC 8*(Grand Rapids, MI.: Zondervan, 1984), 198.

Blessing의 말대로 예수님의 치유는 결국 '마음' 곧 '전 인간적 존재'를 다루는 양식이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인간 치유에서 어떠한 핵심적인 상담적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Huggins는 이에 관하여 우리에게 유의한 통찰을 제공한다. 그는 치유 사건에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말씀'이 상담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상담의 모델들은 너무나 빈번히 고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저지른 잘못 그리고 상황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만들거나 덜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 가져와야 할 변화에 대해 초점을 두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 죽음의 말(death-words)이다. 이런 말들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이 자기중심적인 실존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안락하게 혹은 성취지향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신념을 강화시킬 뿐이다. 하지만 생명의 말씀(life-words)은 정반대다. 생명의 말씀은 고난이 어떻게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실존을 전혀 다른 삶으로 바꿔주는지를 보여준다. 예수님이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과 나누신 모든 대화들은 생명의 말씀을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정확한 모델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대화하실 때, 그분의 목표는 상황을 개선하거나 곤경에서 구해내시는 것 그 이상이었다. 사실, 그분의 상담은 종종 사람들이 자신들을 더 깊은 고난으로 밀어넣는 선택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이었다.<sup>11)</sup>

이와 같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과정에서 하신 다양한 치유사역의 목적과 말씀의 사용은 제자훈련과 성경적 상담 간의 긴밀한 관계성을 확증한다.

---

11) Huggins, *Friendship Counseling*, 13.

## 2. 제자훈련 사역에 성경적 상담을 적용한 사례연구

### 1) 연구방법과 과정(Research Method and Procedure)

이 논문은 한 지역교회 제자훈련 사역에서의 성경적 상담의 유용성을 고찰하기 위해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Qualitative Research Method)들 중 사례연구(Case Study)를 사용하였다. Robert Yin은 사례연구가 일반적인 지역교회와 같이 복잡성을 내포하지만, 경계가 분명한 체계(bounded system)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한다.<sup>12)</sup> 이러한 사례연구의 대상은 주로 프로그램, 사건, 활동 또는 개인 인물 등이며, 이에 관한 자료들은 보통 인터뷰나 참가자 관찰을 통해 수집된다.

제자훈련 사역에 성경적 상담을 적용하는 이 연구의 사례는 한 지역교회의 제자훈련사역에 필자가 참여하며 이루어진 것이다. 이 그룹은 기초 제자훈련의 과정으로 3그룹 모두 30-40대의 25명의 가정주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문제(Internet overuse)를 가지고 있는 4명의 가정주부를 선택하여 따로 상담하였다. 선발을 위해 사용된 진단 검사지는 Kimberly Young의 자가 진단 테스트였다.<sup>13)</sup> 4명의 대상을 위한 개인상담은 각각 4회를 실시하였고, 이들이 함께 그룹으로 나누는 시간을 2회 가졌다. 즉, 모두 1주일에 1회 정규 제자훈련모임을 갖고, 다른 2회는 4명이 만나서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는 그룹상담의 시간을 가졌다. 이 모든 과정은 약 6개월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아래의 표1은 성경적 상담에 참여한 대상들에 관한 프로파일이다.

12) Robert Yin,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1994).

13) Kimberly Young,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Cyber Psychology and Behavior* 1, no.3(1996): 240.

〈표1〉 참여자 프로파일

번호	나이	교회 다닌 연수	제자훈련 기간	인터넷사용	다른 문제
1	31	31	20주	주 30시간	자녀문제
2	33	20	26주	주 32시간	관계문제
3	38	9	20주	주 40시간	가정문제
4	41	5	26주	주 35시간	우울증

상담을 하면서 수집된 자료(data)들은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에 의한 코딩(coding)을 통하여 주제별로 분석하였다. 주제별 분석은 “제자 훈련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함께 성경적 상담을 받은 후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가?”라는 연구질문으로 이루어졌다. 참여자들이 경험한 변화는 ‘문제의 심각성 인식’, ‘신앙과 인터넷 문제의 연관성 인식’ 그리고 ‘교회의 중요성에 대한 깨달음’으로 나타났다. 이 주제들은 아래의 분석결과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 2) 분석 결과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 사용의 문제가 파괴적인 인터넷 도박, 인터넷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과는 다르다고 인식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나누었기 때문에 제자훈련 그룹과 또 네 명의 상담 그룹으로 나누는 것은 비교적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상담에서는 문제의 심각성 인정, 영적인 전쟁, 하나님과의 관계,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이라는 4가지 주제를 다루었고, 2회의 그룹상담에서는 영적인 전쟁과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며 실제의 삶을 나누었다.

4회의 상담, 2회의 그룹 모임 그리고 계속되는 주중 제자훈련은 이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다. 특별히 피상담자들은 문제의 심각성 인식, 신

양과 인터넷 문제의 연관성 그리고 교회의 중요성을 통해 도움을 받음으로써 삶이 변화되었음을 밝혔다.

(1) 문제의 심각성 인식

피상담자들은 자신들의 과도한 인터넷 사용에 대해 보통 사람들보다 인터넷을 조금 더 많이 정도일 뿐이라고 생각하거나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합리화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현대사회에서는 인터넷이 삶의 일부분으로서 필수적이며 어느 누구나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즉 그들은 스스로 인터넷 사용빈도를 조절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담자와 함께 냉철한 시각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피해를 입고 희생당하고 있음을 스스로 알 수 있었다. 이들이 상담을 통해 얻은 유익은 과도한 인터넷 사용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 피상담자는 이렇게 말한다.

“인터넷을 그냥 시간을 소일하는 정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 누가 인터넷 사용에 대해 문제를 삼으면 내 고유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 같아 화부터 내었습니다.”

인터넷 과다사용 또는 중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선적인 과제는 피상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문제’로 인정하는 것이다. Edward Welch는 모든 중독들의 핵심적인 특징으로서 거짓말(lying), 다른 것들을 비난하는 것(blaming others), 죄에 눈이 먼 것(blind to sin)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는 것(no fear of the Lord)을 언급하고 있다.<sup>14)</sup> 피상담자들은 종종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인터넷 사용에는 별 문

14) Edward T. Welch, *Addictions: A Banquet In The Grave*, 김준 역, 『중독의 성경적 이해』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3), 74-94.

제가 없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책임을 남편의 무관심 또는 다른 누군가의 잘못으로 돌린다. 또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사용하는데 무슨 문제가 되는가?”의 방식으로 자기 방어적인 대응을 한다. 실제로 피상담자들은 그들의 삶이 인터넷에 의해서 조정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인터넷 사용을 통제·조정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다.

과도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피해와 문제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삶의 형태에 대한 사려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피상담자는 1주일간의 삶을 자세히 모니터하는 숙제를 수행했다. 즉 7일간을 30분 단위로 나누어서 무엇을 했는지를 다음 날 자녀들이 학교를 간 후, 집에 혼자 있을 때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갔는지를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그들은 이러한 모니터링을 통해 매일 5-7시간 동안 인터넷을 하면서 드라마, 쇼와 같은 TV 프로그램과 영화를 보고, 쇼핑을 하고, 소셜 네트워크 같은 웹사이트에 돌아다니며 서핑하는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었다. 피상담자들은 숙제와 탐색을 통해 정작 실제로 감당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대충 하거나 최소한의 것만 겨우 해냄으로써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일정에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인생을 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상담자들은 이러한 최소한의 것만을 수행하는 수동적 삶이 그들의 가족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며,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결코 아님을 깨달았다. 또한 삶의 모니터링을 통해 이러한 과도한 인터넷 사용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많은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인정했다.

## (2) 다른 문제들과의 연관성

제자훈련을 통한 상담의 유익 중 하나는 피상담자와의 깊은 신뢰 형성이다. 한 피상담자와 남편과의 뿌리 깊은 관계의 문제를 나눌 수 있었는데, 그 대화를 통해 오랜 기간 동안 그가 남편과 거의 대화 없이 단지

사무적으로 필요한 말만 주고받고 지내면서 서로에 대하여 불신과 아픔, 상처가 많이 쌓음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친정과 시댁 간의 갈등까지 복잡하게 얽혀서 문제 해결은 쉽지 않았다. 피상담자는 자신이 만일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면 남편과 지금까지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남편의 무시로 인해 느껴지는 외로움과 서운함, 이러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에 대처하는(cope for) 저의 방법은 인터넷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드라마를 보고, 쇼핑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이러한 아픔을 잠시라도 잊게 됩니다.”

즉, 그는 지금까지 인터넷을 함으로서 남편과의 관계의 문제를 회피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인터넷 세상으로의 현실도피는 ‘나도 당신 없이도 생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남편을 향한 일종의 시위였고, 이것은 또한 남편과의 친밀한 관계의 부재에서 오는 애정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도 해주었다. 인터넷을 과도하게 사용한 결과, 그 피상담자는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거의 없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거나 유지할 수 없었다.

### (3) 인터넷 문제와 신앙

피상담자들은 자신들의 인터넷 문제와 영적인 역동성(spiritual dynamic)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해 영적인 생활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거짓말과 유혹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하는 것에 관한 것은 오직 성경말씀과 영적인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볼 때 발견할 수 있었다. 피상담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상담을 통해서 인터넷 문제를 신앙의 관점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인터넷을 통해 삶을 파괴하려고 하는지를, 또 영

적으로 이 마귀를 강력하게 대적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4) 영적인 우상과 전쟁

Welch는, 중독을 유발하는 것들과 분리하며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중독 문제를 가진 사람이 밋아야 할 변화 과정(The Process of Change)의 첫 단계라고 말한다.<sup>15)</sup> 인터넷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대단한 각오와 헌신이 필요한데, 그것은 곧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거짓말과 진리를 구별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다음은 피상담자의 자기 경험담이다.

“제가 인터넷에서 떨어질 수 없는 것은 마음속에서 생기는 합리화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고 대화를 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인터넷을 한다’고 하거나, ‘이것은 나의 자유시간에 누리는 내 권리이다’, 또는 ‘이렇게 해도 생활에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문제가 생기면 내일부터 인터넷을 하지 않으면 된다. 나는 조절할 수 있다’ 등의 생각입니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당화할 것을 마음속에서 찾아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 이기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뿐이다. 현실 도피수단으로 인터넷을 할 때 오는 일순간의 즐거움이라는 나의 감정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를 결단해야 한다. 즉,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의 문제는 우상 숭배의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인터넷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두려움으로 마음을 채워야 한다.

---

15) Welch, *Addictions*, 302.

(5) 신앙공동체인 교회의 중요성과 도움

피상담자들이 스스로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었다고 여긴 것은 바로 신앙공동체인 교회와 믿음 안에서 만난 친구들의 도움이었다. 4명의 피상담자들은 만나서 서로 자신의 경험과 어려움, 문제 등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 나눔의 시간은 각자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더 계획적이고 생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의지하고 도움을 받는지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들은 의외로 솔직하게 나눔으로써 서로를 향한 격려와 위로가 넘쳤으며,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삶을 강조하는 잠언서를 묵상하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피상담자들은 또한 자신이 인터넷을 사용하고자 하는 충동(compulsiveness)을 억제할 수 없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도움이 되었음을 나누었다. 이와 비슷한 예로 AA(Alcoholic Anonymous)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가장 대표적인 중독 지지모임(support group)으로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서로를 돕고 격려하는 모임이다. 피상담자는 교회의 도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터넷을 하게 되면 나는 현실과 다른 세상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의 세계와는 멀어집니다. 이제 교회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되니 현실의 세계에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의 가장 큰 도움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피상담자의 변화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은 함께 성경공부를 하는 동료들과 신앙공동체인 교회이다. 피상담자는 가능한 한 집에 머물기보다 신앙의 동료들과 시간을 보내라는 필자의 권유대로 제자훈련을 받는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교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의 인간관계 범위가 확대되고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었다. 예수님

은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고 말씀하셨고, 잠언에서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 4:12)고 말씀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피상담자가 이렇게 교회의 모임에 참여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만날수록 집에서 인터넷을 접하는 기회가 점점 더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제가 깨달은 것은 제 스스로 인터넷을 조절하거나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집에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인터넷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밖에서 분주히 일을 하고 사람들을 만납니다. 특별히 제자훈련의 동료들을 만나거나 전화로 연락하면서 서로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 점검하고 기도와 격려를 해줍니다. 제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은 교회와 신앙의 친구들입니다.”

피상담자의 삶에서 인터넷 사용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곧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에게는 오랫동안 힘들어했던 남편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 문제를 해결해나감으로써 더 나은 관계의 삶을 위한 기초를 만들었고, 그의 남편도 피상담자의 변화된 모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변화의 과정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다.

### 3. 평가와 제안

#### 1) 평가

제자훈련 사역에의 성경적 상담의 적용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이 논문에서 언급되었듯이, 제자훈련과 성경적 상담은 성경중심, 하나님 중심이라는 목적을 공유하므로 충돌 없이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성경적 상담은 사람들의 바쁜 삶 가운데 제자훈련이 개입하지 못하는 내면의 상태와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고 내면의 성숙을 도울 수 있었다. 또한 자칫 외향적인 사역에 대한 헌신에만 초점을 맞추는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제자훈련에 있어 성경적 상담은 내면의 문제와 성숙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성경적 상담을 제자훈련 사역에 도입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음을 발견하였다. 물론 원론적으로 볼 때, 양자가 서로 도움을 주는 사역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한정된 인적·시간적 자원(resources)을 가진 지역교회가 두 사역을 접목한다는 것은 버거운 일이 될 것이다. 당장 제자훈련 지도자들을 훈련 시키는 것부터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할 때, 성경적 상담 훈련까지 한 후 사역에 활용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또한 교회사역 이외의 일로도 여러모로 바쁜 평신도 제자훈련 리더들이 따로 시간을 내어 상담훈련을 받고 개인 또는 그룹상담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훈련 사역과정의 중간 부분에 하나의 공식적인 단계로서 성경적 상담에 관한 과정을 삽입하여 그에 관한 훈련을 하고, 마지막 상급과정에서는 제자훈련과 성경적 상담의 내용을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단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제자훈련 사역의 철학과 전 과정에 변화를 주는 방대한 작업이므로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어서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자훈련 안에서의 성경적 상담의 정착을 위한 6가지 제안을 한다.

## 2) 제안

아래의 제안은 제자훈련 사역 가운데 성경적 상담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성도를 뜻하는 M-A-T-U-R-E이라는 두자어(acronym)로 표현된다. 세분화하면, 처음 두 단계(Materialization-Activation)는 제자훈련에서 성경적 상담의 필요성을 소개하는 단계이고, 그 다음 세 단계(Training-Utilizing- Recruiting)는 훈련, 선발, 모집하는 단계이다. 마지막 확장단계(Expanding)에서는 사랑의 교회가 다른 지역교회 혹은 교단들과 협력하여 좀 더 광범위하게 성경적 상담을 활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1) 자료화(Materialization)

기독교 상담학자 Siang-Yang Tan은 점증하는 세속적 상담과 심리치료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지난 20년 간 그리스도인 필자들이 특히 지역교회라는 맥락에서 쓴 평신도 상담에 관한 간행물이 쏟아져 나왔음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이 문서들은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세속적인 접근에서는 무시되었던 (상담의) 영적 차원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있고, 둘째, 성경적 상담이란 ‘안수받은 목사나 정신건강 전문가가 아닌 평신도, 특히 상담사역에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최소한의 인격적 자질을 갖추고 있고, 원래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행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sup>16)</sup>

우리는 Adams<sup>17)</sup>가 크리스찬은 상담에 능한 자들로서 모든 평신도가 성경적 상담 사역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 사실을 알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신도들에게 성경적 상담에 관한 바른 안내를 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제자훈련 교재에 ‘성경적 상담: 왜 필요한가, 어떻게 하는가?’ 라는 부분을 삽입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성경적 상담의 원리와 유익을 교육하는 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제자훈련 과정 전체를 성경적 상담의 원리와 방법

16) Siang-Yang Tan, *Lay Counseling*, 미션월드 역, 『평신도 상담자』 (서울: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1997), 76.

17) Jay E. Adams, *The Christian Counselor's Manual* (Phillipsburg, NJ.: P&R, 1973).

으로 충분히 이끌 수 있지만, 훈련 교재의 한 부분에 ‘성경적 상담’의 원리와 방법 ‘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하는 것은 훈련생들에게 여러모로 유익을 줄 수 있다. 혹은 별도의 소책자, 브로셔, 팜플릿 등을 만들어 제자반 혹은 제자반 외의 특별 모임에서 교육할 수도 있다.

상담을 여전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의미의 ‘치료’로 보던 훈련생들은, 상담의 범위가 넓고, 사례가 많다는 것과 크리스찬의 삶 전체가 지속적인 상담의 과정임을 알게 됨으로써, 개인의 경건과 선한 일의 실천에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또한 교회 안과 밖에 유행하는 심리학 중심의 상담을 통해 비성경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상담이론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2) 실제화(Activation/actualization)

평신도에 대한 효과적인 성경적 상담사역이 교회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성경적 상담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과 내용들이 사역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 성경적 상담이 무엇인지 알게 된 훈련생들이 실제로 성경적 상담의 원리와 방법에 의해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는 것은 큰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기초적이기는 하지만) 훈련 교재에서 개인 경건의 시간(QT)을 이용하여 성경을 관찰-해석-반응-적용하는 훈련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적인 상담의 원리와 방법을 다루는 부분에서도 훈련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성경적 상담의 ‘시각’으로 정리해볼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때 David Powlison이 자신의 저서 *Seeing with New Eyes* 『성경적 관점으로 본 상담과 사람』의 7장에서 제시한 ‘엑스레이 질문들’을 한국적으로 약간 변형시켜 아래와 같은 개략적인 질문지를 만들어서 훈련생 스스로가 표시하도록 하고, 이후 상담을 요청하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sup>18)</sup> 이러한 상담은 제자훈련 기간에 최소 5회 정도 하되, 시간적인 간

18) David Powlison, *Seeing With New Eyes: Counseling and the Human Condition through the Lens of Scripture* (Phillipsburg, NJ.: P&R, 2003), 192-207.

격을 두어 훈련생 스스로가 상담을 통한 자신의 변화, 즉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태도, 시각과 태도의 변화에서 문제 해결의 일차적인 실마리를 찾는 해석 능력, 지·정·의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종합적인 성숙을 느끼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 (3) 훈련(Training)

제자훈련 과정에서 성경적 상담을 염두에 두고 훈련생들을 교육시키고 실제 상담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적 상담을 제자훈련 과정에서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면, 평신도들을 상담에 능한 자들로 세우는 것을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로 삼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성경적 상담의 원리와 방법을 능숙하게 익히고, 크리스찬들의 필요에 따라 상담으로 그들을 돕는 것이다. 특히 이 상담사역은 전도 대상자들과 초신자들에게 큰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을 사역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성경적 상담 세미나, 워크숍, 컨퍼런스와 더불어 교회에 '상담학교'를 개설하여 성경적 상담을 교육하도록 하는 것이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제자훈련을 통해 교회의 사역자들이 훈련되고 나아가 이들이 성경적 상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 (4) 활용(Utilizing)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룩된 성경적 상담 프로그램들은 효과적으로 활용됨으로써 일회성 경험이나 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배움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제자훈련을 통해 훈련생들에게 실제 성경적 상담을 실시하고, 학습한 성경적 상담을 '상담학교'를 통해 훈련생 혹은 이미 훈련을 마친 교인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훌륭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발굴, 배출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의 활용은 상담으로 훈련된 평신도 지도자들이 사역현장에 효과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5) 모집(Recruiting)

성경적 상담사역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미래의 예비 사역자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성경적 상담이 이들에게 익숙한 주제가 되도록 주일설교나 성경공부 그리고 여러가지 교육 프로그램에서 언급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성경적 상담을 알리는 소책자와 기타 홍보물의 필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출간한다면 성경적 상담이 무엇인지 알도록 도움을 주는 통로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집이 무분별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Tan은 평신도 상담자들을 선발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할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 영적 성숙도 :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을 잘 알고 삶에 적용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기도의 사람이어야 한다.
- 심리적 안정성: 솔직·투명해야 하나 심리적으로 심각한 장애가 있으면 안 된다.
- 사랑과 관심: 온화하고 남을 보살피는 사람이어야 한다.
- 영적 은사: 지혜, 지식, 영분별, 자비, 권면과 같은 은사의 소유자여야 한다.
- 경험: 너무 어리지 않아야 한다.
- 상담 경험: 전에 상담으로 남을 도운 경험은 크게 도움이 된다.
- 인구통계학적인 다양성: 다양한 상담자가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
- 교육 가능성: 시간적 여유, 학습 능력이 있어야 한다.
- 비밀 유지: 피상담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줄 알아야 한다.<sup>19)</sup>

(6) 확장(Expanding)

이 단계는 교회 내에 축적된 성경적 상담의 역량을 교회들과 사회를

---

19) Tan, *Lay Counseling*, 110-111.

향해서 풀어놓는 과정이다. 예를 들면, 성경적 상담 세미나, 워크숍, 컨퍼런스 등을 정기적으로 열고, 각 교회의 상담 목사, 상담 사역자들을 초대하거나, 공립학교, 기업체, 군부대, 교정시설(교도소, 청소년 보호감호 시설), 사회기관(장애인, 독거노인, 요양원, 호스피스, 노숙자, 무료진료소 등등)에 교회가 육성한 상담자들을 연결하고 파송한다.

또는 성경적 상담을 실시하는 이웃교회들이나 교계 전체와 연대하여 한국사회 전체에서 일어나야 할 치유와 회복의 중요한 상담적 과제들(빈부격차와 갈등, 인터넷과 미디어로 인한 청소년의 정서 사막화, 포르노 그래픽/마약/알코올과 같은 중독 문제, 대학입시와 기능교육, 40대 남성들의 급사와 높은 자살률, 저출산과 이혼, 이념적 갈등, 배금주의와 쾌락주의가 만들어내는 공동체 파괴 현상 등등)을 설정하고 공동으로 연구하며 성경적인 대안을 마련한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질 때 교회 안의 지체들이 성숙해지고 이로 인해 가정,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로까지 성경적 상담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다. 성경적 상담은 교회를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세우는 도구이다.

### III. 닫는 글

이 논문은 한 지역교회의 제자훈련 사역 안에서의 성경적 상담의 적용에 대해서 다루었다. 제자훈련 사역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성숙을 큰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성경적 상담을 사용하기에 적절한 환경을 제공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지역 교회에서 제자훈련 사역과 성경적 상담이 서로 도움을 주는(reciprocal) 사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제자훈련이 지역 교회의 핵심 사역으로서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교인들이 신앙의 성숙을 위해 훈련을 받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

다면, 성경적 상담은 좀 더 세분화되고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볼 때, 한국교회에서 주요한 사역으로 자리 잡은 제자훈련에 성경적 상담의 기본개념과 원리와 방법들이 덧붙여져 소개되고, 성경적 상담의 원리와 방법을 숙지한 많은 평신도 상담자들이 나온다면, 현재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과제들, 즉 명목적 크리스찬의 증가, 변화되지 않은 크리스찬의 삶, 교회에 대한 사회의 냉담한 반응과 세속주의의 심각한 도전, 전도의 어려움과 선교적 난맥상과 같은 문제들의 해결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다.

【 참고문헌 】

- 신현광. "A Study on Correlation between Counseling and Disciple Making Training."  
대신대학교. 「대신대학 논문집」 제12권(1992): 430.
- Adams, Jay E. *Competent to Counsel*. Grand Rapids, MI.: Zondervan, 1970.
- Adams, Jay E. *The Christian Counselor's Manual*. Phillipsburg, NJ.: P&R, 1973.
- Anderson, Neil. *Discipleship Counseling: The Complete Guide to Helping Others Walk in Freedom and Grow in Christ*. Ventura, CA.: Regal, 2003.
- Blessing, Kamila & Walter W. Wessel. *Mark EBC 8*. Grand Rapids, MI.: Zondervan, 1984.
- Hardy, Carey. "Is Biblical Counseling Really Necessary? Isn't Discipleship Sufficient?" In *Introduction to Biblical Counseling: A Basic Guide to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Counseling*, eds. John MacArthur & Wayne A. Mack. Dallas, TX.: Word, 1994.
- Huggins, Kevin D. *Friendship Counseling: Jesus' Model for Speaking Life—Words to Hurting People*. Colorado Springs, CO.: Nav Press, 2003.
- Kellemen, Robert. *Equipping Counselors for Your Church*. Phillipsburg, NJ.: P&R, 2011.
- Powlison, David. *Seeing With New Eyes: Counseling and the Human Condition through the Lens of Scripture*. Phillipsburg, NJ.: P&R, 2003.
- Tan, Siang-Yang. *Lay Counseling*. 미션월드 역. 『평신도 상담자』. 서울: 미션월드라이브러리, 1997.
- Welch, Edward T. "What Is Biblical Counseling, Anyway?" *The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16, no.1(1997).
- Welch, Edward T. *Addictions: A Banquet in the Grave*. 김준 역. 『중독의 성경적 이해』.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3.
- Watson, David. *Discipleship*. London: Hodder and Stoughton, 1981.
- Yin, Robert.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1994.
- Young, Kimberly.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Cyber Psychology and Behavior* 1, no.3(1996).

【 Abstract 】

## Application of Biblical Counseling in Discipleship Ministry: A Qualitative Case Study

**Myeong Ok Kang**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at benefits participants in discipleship training receive when experiencing biblical counseling redundant. Specifically, by asking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 “What change did the participants discipleship training experience after receiving biblical counseling?”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participants experience growth and change in biblical counseling.

To achieve this goal, the study first reviews precedent literature related to the topics such as discipleship, discipleship training, and biblical counseling, and explains theoretical background to examine a local church’s discipleship ministry and biblical counseling.

The literature review found similarity between discipleship training and biblical counseling in their purpose and approach. Among many literature, David Watson’s book “Discipleship” has been a classic that explains the meaning of discipleship. For him, the essence of discipleship is to imitate Jesus and follow his steps in every aspect of one’s life. “Discipleship training” usually refers to a specific ministry of local congregation to train its members in the areas of Bible knowledge, its application, and practices in everyday Christian life. Among various Christian counseling approaches, biblical counseling model resembles the goals and visions of discipleship and discipleship training. But a distinctiveness of biblical counseling can be found in its focus on concrete change in deeper levels in the areas of counseling related issues.

Among various traditions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he study employed case study method for it investigates complex bounded system like a local congregation.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biblical counseling in the process of a discipleship training, the study first selected a local congregation well known for its discipleship

training ministry, and provided four participants in discipleship training process with individual biblical counseling and two ground counseling sessions which lasted for six months. Main data were transcripts from counseling and discipleship training sessions and they were coded through content analysis.

The result of the data analysis reveals that the participants were having various issues such as marital relationship problems, depressed feelings, and internet overuse. Among them, the problem of internet overuse was notably shared. Thus, internet overuse problem was mainly addressed in counseling sessions. Data analysis reveals that the participants realized seriousness of the problem, importance of faith for addressing internet problem, and importance of local church through biblical counseling.

Initially, the participants assumed that they were using internet a little more than ordinary use and that the use of the internet was necessary for life. However, through counseling intervention that helped closely monitor and analyze daily use of the internet, they realized the seriousness of their problem. Once they could see the reality in their problems, they could find other related issues. For instance, participants could connect the internet overuse with their marital and other related problems. By indulging in internet use, they avoided to face their relational problems and tried to fill the emptiness. The participants also could see their problems in the light of faith and the Bible. More concretely, they could see their struggles as spiritual battle. Finally, the biblical counseling intervention led them to acknowledge and appreciate the positive roles of faith community as a vital resource for spiritual recovery process.

Based on this result, the study suggests six ways to apply biblical counseling in discipleship ministry in local church: materializing, actualizing, training, utilizing, recruiting, and expanding. That is to say, discipleship training ministry needs to have materials to provide information and specific content of biblical counseling. Further, it needs to implement the content of biblical counseling as a part of discipleship training program so that discipleship training ministry can touch every aspect of a believer's life. To do this, educational program such as "counseling school" as well as professional counseling should have collaborative relationship that enhances growth and change.

**Key words:** discipleship, discipleship training, biblical counseling, congregational care, internet addiction